

중국의 대북 전략 외교와 북중 경제 협력의 성격 분석

김정균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섭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중국의 대북 외교 중심이 기존의 실리 외교에서 자국의 정치 전략적 이익이 내포된 새로운 전략 외교로 전환함에 따라, 북한과 중국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다시 증진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 개입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항하여,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은 지난해 5월 북한과 '중·조경제기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에 대해 장기적인 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1993년에 폐지했던 우호 가격도 부활시켰다. 1994년부터 감소되던 북중 무역도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지난해 중국은 다시 북한의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특히, 중국의 전략 외교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정부의 대북 투자 장려에 힘입어 지난 1년 사이에 중국 및 홍콩계 기업의 대북 투자 협력 사업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나진·선봉 지역의 경우 1996년 6월까지 투자가 실행된 외자 기업은 총 22 개였으나, 1997년 6월 현재 가동 중인 외자 기업은 56 개로서 이 가운데 70% 이상이 중국 및 홍콩계 기업이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낙관하고 있어, 대북 전략 외교에 따라 중국은 무역 및 투자 협력 분야에서 북한과의 우호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곧 북한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가 증대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한민족경제공동체 형성과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민족경제공동체 형성과 한국 주도의 민족 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중국의 비협조적 상황을 최소화하고 중국의 협조를 보다 증대시킬 수 있는 對중국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대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북 경협을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머리말: 중국의 대북 '전략 외교'

중국은 자신의 국가 목표를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 즉, 북한체제의 붕괴

주요

국의 대북 외교 정책 중심이 다시 변화하고 있다. 대북 '실리 외교'에서 전략 외교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현재

를 방지하는 바탕 위에서 실리 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실리 외교는 북중간의 정치·외교적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간 경제 관계의 규모와 성격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북한에 대한 1992년 경화결제 요구와 1994년 식량 무상 지원 중단은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90년대 들어 조금씩 증가하던 북중 무역은, 중국의 대북 실리 외교에 영향받아 1993년을 최대치로 하여 1994년 이후 다시 감소하게 된다(〈표 1〉 참조).

그러나 1995년을 지나면서 경제 위기로

인해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는 상황에서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대북 접근 움직임이 보다 가시화되자,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대북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1996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북한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다시 모색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동맹 외교'로의 복귀가 아니라, 중국의 정치 전략적 이익이 내포된 새로운 '전략 외교'로의 전환이다. 즉, 1996년 5월 홍성남 북한 정무원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중·조경제기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협정의 개요는 첫째, 향후 5년간 중국은 북한에 매년 식량 50만 톤, 석유 120만 톤(일설에 의하면 130만 톤), 석탄 150만 톤(일설에 의하면 250만

〈표 1〉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북한의 대외 무역 현황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총무역액	수출액	수입액	총무역액	수출액	수입액
1991	2,720	1,010	1,710	610 (22.4)	86 (8.5)	525 (30.9)
1992	2,660	1,020	1,640	697 (26.2)	155 (15.2)	541 (33.0)
1993	2,641	1,021	1,620	900 (34.1)	297 (29.1)	602 (37.2)
1994	2,108	839	1,269	624 (29.6)	199 (23.7)	425 (33.5)
1995	2,052	736	1,316	550 (26.8)	64 (8.7)	486 (36.9)
1996	1,976	726	1,250	566 (28.6)	69 (9.5)	497 (39.8)

자료: 중국 해관 통계; KOTRA, 「1996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주: () 안은 북한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톤)을 제공하며 둘째, 이 가운데 반은 무상으로 하며, 나머지 반은 국제 가격의 1/3로 하며 셋째, 기타 소비재도 80%는 우호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¹⁾

이와 같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장기 지원을 약속하고 1993년부터 폐지했던 우호 가격을 부활시킨 목적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하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과 북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에 있으며, 협정이 密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게 속셈을 보이지 않고 북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²⁾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위협적인 미국의 대북한 영향력만 키워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과 협력외에도 중국은 1996년 5월 이후 북한과 정치·군사적 목적의 상호 방문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중·조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도 계속 유효하다.

특히, 중국의 이붕 총리는 1996년 7월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대표단(김윤혁 북한 정무원 부총리 일행)에게 중국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최대한 지원과 협력을 하겠

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이때 이붕 총리는 중국의 농정 개혁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동농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중국식의 청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⁴⁾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내정 불간섭 즉, 서로 국내 정책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을 바꾸어 대북 원조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내부 개혁을 추진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 지원에 바탕을 둔 북중간 우호 협력 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미도 없지 않다. 즉,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개입이 증대됨에 따라 북한 경제의 위기 속에서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증대될 경우, 그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중 경제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1) 「每日新聞」(1996. 7.18); 「讀賣新聞」(1996. 7.20).

2) 「每日新聞」(1996. 7.18). 이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양국간의 협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 중앙통신(1997. 2.3) 보도 및 張庭延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뉴스위크」한국어판(1997. 2.12)) 참조.

3) 「新華通信」(1996. 7.10).

4) 「朝日新聞」(1996. 8.30).

5) 日本貿易振興會(1996),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통일원 譯,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 p. 94.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본고는 북중 변경 무역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과 중국간의 경제 협력 실태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중심을 두고 있는 바, 대북 경협 정책을 포함하여 우리의 대북 통일 정책과 통일 외교 정책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이 있기를 기대한다. 먼저 북중간의 무역 관계를 살펴본 다음, 양국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살펴본다.

주요 품목별 무역 추이와 특성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역이다. 80년대 말까지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구소련이었다. 1989년의 경우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구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49.9%였으며, 중국은 11.7%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1991년부터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하였다. 즉, 북중 무역은 90년대 들어 꾸준히 증대되어 1993년에 중국이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1%였다.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중국은 북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2년 중국이 북한에 대해 국제 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 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북중 무역은 1994년 이후 다시 감소하게 되어, 1995년에는 일본이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6년 5월 중국이 전략 외교로 대북 외교의 중심을 전환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북중간의 경제 관계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4,000만 달러 상당의 무상 원조 등에 힘입어 1996년부터 북중 무역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즉, 지난해 북중 무역은 5억 6,600만 달러 수준으로 북한 무역 전체의 28.6%를 차지해, 중국은 1995년에 1위를 차지했던 일본을 제치고 다시 북한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공장 가동률이 20~30%밖에 안되는 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수출 물자가 없어 중국으로부터 거의 일방적으로 수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중국은 북한의 최대 수입선이며, 특히 에너지와 식량의 최대 수입선이다. 북한의 對중국 무역 의존도, 특히 對중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다. 주요 품목별로 북중 무역의 추이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 구조

먼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목재, 철강, 수산물 등 1차 산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통적으로 북한의 對중국 최대 수출 품목이던 철강

대신 원목이 북한의 최대 수출 상품으로 부상하였다. <표 2>에서 보듯 철강은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2억 700만 달러와 1억 2,600만 달러를 중국에 수출하여 북한의 對중국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철강 생산 능력 급감으로 1995년에는 1,900만 달러, 그리고 1996년에는 1,180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북한의 최대 철광산인 무산광산도 가동이 중단되었다.

철강 수출이 감소되면서 대체 품목으로 올해 중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 물자의 하나가 바로 폐철이다. 폐철은 평양에서도 일부 집산되지만 대부분 신의주에서 집산되어 주로 중국의 단둥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멀쩡한 기계까지 뜯어 폐철로 만드는 병폐가 있어 북한 당국이 4월경에 한때 폐철 수출을 중단시켰다가, 중국측과의 계약 이행 차원에서 나머지 물자를 보내주기 위해 다시 재개하였다. 지난 5월 북한에서 단둥으로 들어온 물자의 거의 대부분이 폐철이었는데, 이러한 폐철 반출은 북한 당국에 의해 5월 30일부로 중단되었다.

한편, 원목 수출은 1995년 360만 달러에서 지난해 1,750만 달러로 크게 증대되었다. 이들 목재는 대부분 연변이나 장백현 일대로 반출되는데, 그것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생산된 것이다. 북한의 장백 밀림에서 생산된 목재는 국내용 수준밖에 되지 않고, 수출 표준에 드는 것은 모두 러시아에서 생산된 것이

다. 이 목재는 북한이 현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러시아에 나가 있는 북한 벌목공들의 노임비로 받아온 것이다. 북한은 이 목재를 주고 변경 무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주로 식량과 기타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이 목재로 화룡시 신흥무역공사와는 식량을 교환하고 있으며, 용정시 대외무역공사와는 휘발유 등 정유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 상품의 하나인 수산물도 1994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북한의 수산물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 비료의 경우 1995년에 북한이 중국에 37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6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해 눈길을 끈다.

비료는 북한 자체의 수요에도 크게 부족해, 북한은 최우선의 국가 과제인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봄·여름에 걸쳐 러시아 및 싱가포르 등지로부터 비료와 농업용 비닐을 구입하는 데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연변의 경우 비료가 부족한 바, 북한은 외화벌이를 우선해 수입 비료 가운데 일부를 중국에 되팔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되거리 무역인데, 얼마전 북한이 일본에 얼마간의 곡물을 수출한 것도 외화벌이를 위한 되거리 무역 또는 중계 무역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가 북한에 비료를 무

〈표 2〉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과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순위	1993	1994	1995	1996
원목	7.3	5.9	3.6	17.5
철강	207.7	126.6	19.3	11.8
수산물	11.5	14.5	10.8	6.5
섬유류	4.3	3.4	2.5	4.4
철강과 그 정광	11.9	5.5	4.4	3.1
컬러 TV용 음극선관	0	0	0	1.9
비료	2.8	1.2	3.7	1.6
알루미늄괴	1.4	1.0	1.0	1.4
시멘트	19.4	16.7	1.8	0.1

자료: 중국 해관 통계.

상 지원(1만 톤 이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비료는 모두 조·중친선택암협동농장(평양시 강동군 소속)으로 들어간다.

북한의 對중국 시멘트 수출은 1993년의 1,900만 달러 수준에서 1996년에는 10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되었는데, 이는 북한 시멘트 공장의 가동 중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생산 물자 가운데 중국에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는 강재, 철근, 시멘트, 대리석 등이 있는데, 북한의 생산 부족으로 수요에 못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가장 수요가 큰 것은 시멘트인데, 생산량의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생산 능력 300만 톤 규모의 금강표시멘트공장(순천시멘트공장)도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지난해 방직용 섬유 제품의 수출은 1995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5년까지 對중국 수출 실적이 전혀 없던 컬러 TV용 음극선관이 지

난해 190만 달러를 수출하여, 그동안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 상품이던 비료와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을 앞지르고 있다. 중국을 포함하여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TV, VTR 등 가전 제품 및 컴퓨터와 그 관련 제품(부품 등)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그동안 일본 등 외국과의 합작 및 위탁 가공 생산을 통해 수출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同제품의 북한내 생산 기반이 아직 미약한 상태에서 〈표 3〉에서도 보듯, 관련 부품의 수입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합작 및 임가공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한 수출 증가는 되거리 무역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⁶⁾

북한의 주요 수입 상품 구조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을 보면, 원유, 코크스 등 에너지 물자와 곡물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생필품이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對중국 최대 수입 상품인 원유는 지난해의 경우 1억 1,800만 달러로 1995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유류 제품은 1,500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이 가운데 등유의 수입이 840만 달러로 가장 많다.⁶⁾ 물량으로 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원유 수입량은 93만 6,000 톤으로 1995년에 비해 감소되었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60만 톤은 국가 계약(즉, 국가 무역)에 따라

공급되었으며, 중국의 화공진출구공사에서 40만 톤을 추가 공급(변경 무역)하였다고 한다. 또 지난해 중국은 디젤유, 휘발유 등 정유 제품 10만 톤을 북한에 공급하였다. 북한은 중국외에도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태국 등지에서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1996년 북한의 對중국 식량 수입의 경우,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반영하여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 등 제분 공업 제품이 1995년에 비해 392% 증가한 9,650만 달러를 기록하

〈표 3〉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입 품목과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순위	1993	1994	1995	1996
원유	139.9	87.4	130.9	118.7
제분 공업 제품	5.9	1.8	19.6	96.5
유류	33.1	38.1	49.1	31.1
곡물	97.7	28.7	6.6	30.0
등유 등 유류 제품	17.3	17.6	18.1	15.6
프라스틱 제품	10.2	15.1	15.9	14.2
유연탄	69.9	62.1	43.6	13.9
전기·전자 제품	18.4	14.7	33.2	13.0
아연광과 그 정광	12.7	10.6	8.2	11.8
자동차 및 그 부품	9.1	6.3	6.7	10.5
공기름	7.3	1.9	6.0	9.4
코크스	5.1	2.6	6.0	7.5
자동차 타이어	7.7	5.4	5.6	6.5
철강	10.5	4.2	8.1	6.5
설탕과 설탕 과자	10.8	7.1	4.5	6.1
귤런	1.4	1.2	0.6	4.9
세탁비누	13.2	6.2	4.6	3.5
소금	0.9	2.5	3.0	3.0
맥주	1.9	1.7	2.9	3.0

자료: 중국 해관 통계.

6) KOTRA, 「1996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7) 한국무역협회, 「1996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 동향」, 남북 경험 리포트 97-5호.

였으며,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은 1995년에 비해 354% 증가한 3,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무상 원조분이 포함된 것이지만, 1995년에 수입한 이들 품목의 합계 2,6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액수이다.

북한은 저장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가루 제품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곡물 수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도 식량이 부족하여 곡물 수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즉, 중국의 對북한 수출 품목과 관련하여, 단동의 경우 식량 등 14가지 품목은 당국의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예컨대, 쌀과 옥수수 등은 당국의 허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밀가루, 옥수수 가루 등 가공 제품은 허가증이 필요없다. 게다가 쌀과 옥수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산하 회사에게만 배당(허가)을 주고, 개인 기업에게는 배당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량에는 밀가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옥수수 가루이며, 쌀과 옥수수는 많지 않다. 지난해 북한의 對중국 곡물 수입량은 밀가루 33만 톤을 포함해 모두 54만 7,000 톤 수준으로, 이는 1995년의 15만 3,000 톤에 비해 크게 늘어난 물량이다. 중국은 지난해 상반기에 12만 톤, 하반기에 10만 톤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무역이나 원조가 아닌 변경 무역으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단동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식량은 11만 톤이며, 5월말 현재까지 계약량은 10만 톤이다. 모두 21만 톤인데, 이는 모두 육로 즉 자동차와 기차로 들어간 것이다. 북중 변경 무역의 50%는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연탄은 지난해에도 1995년에 비해 무려 68.1%나 감소한 1,390만 달러의 수입에 그쳐 최근 수년간 계속 감소되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철강 생산이 크게 감소됨에 따

〈표 4〉 북한의 곡물 도입 실적

(단위: 만 톤)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중국	30	62	74	30.5	15.3	54.7
시리아	-	-	-	-	-	14
태국	9	2	7.8	5.2	16.2	3
캐나다	35	8	16	-	-	-
일본	-	-	-	-	37	13.2
기타	55	11	11.5	13.3	27.7	20.1
합계	129	83	109.3	49	96.2	105

자료: KOTRA, 「1996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주: 기타에는 기타 국가 및 국제 기구를 통한 수해 지원분을 포함.

라 제철소에서 필요로 하는 유연탄의 수입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이한 것은 기호품인 담배와 맥주 수입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 다른 수입 품목들은 큰 변동없이 대부분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형태별 무역 추이와 특성

북중 무역은 주로 국가 무역과 변경 무역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모두 공식 통계에 잡힌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도 있다. 국가 무역은 국가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컨대, 1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원유 거래가 그것이다. 변경 무역은 지방정부나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 소속의 무역 회사나 개인 회사가, 북한에서는 중앙이나 지방의 무역 회사가 변경 무역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측에서 보아 개인이나 개인 회사가

하는 변경 무역을 '보따리 무역'이라고 한다. 90년대 들어 북중 무역에서 변경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최근 북중 무역에서 이러한 변경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0% 정도라고 한다. 즉, 북한과 중국 동북 3省간의 무역 현황으로 볼 때, 북중 변경 무역은 1991년에는 3.69억 달러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였으며, 1992년에는 4.89억 달러로 전체의 약 70.2%를 차지한 데 이어, 1995년에는 4.66억 달러로 전체의 82.3%를 차지하고 있다.⁸⁾ 그리고 북중 변경 무역 가운데 70% 이상이 보따리 무역이다.⁹⁾ 올 봄 북한에서 중국 단둥 지역으로 많은 양의 폐철이 반출되었는데, 이 역시 대부분 보따리 무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실로 북중 무역은 대부분 변경 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對중국 수출은 거의 대부분이 변경 무역으로 이루어진다.

변경 무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는 8개의 邊防국가통상구와 3개의 邊境지방통상구가 있다.¹⁰⁾ 이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제3국인

8) 중국 각 省의 「統計年鑑」 각년판 및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각년판 참조. 그런데 이들 통계 자료는 1993년과 1994년 북한과 중국 동북 3省간의 무역 총액을 9.71억 달러 및 7.59억 달러로 표기하고 있어, 앞의 <표 1>에서 본 1993년 및 1994년의 북중 무역 총액을 상회하고 있다. 통계 상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오덕렬 교수는 1993년 북중 변경 무역은 5.27억 달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오덕렬(1997. 3), "중국·북한 경제 협력과 변경 무역의 현황",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p. 151 참조). 그러나 오덕렬 교수는 1993년 북한과 중국 동북 3省간의 변경 무역액을 7억 2,600만 달러로 잡고 있는 바, 이는 북중 전체 무역의 80%에 해당된다(같은 글, p. 153).

9) KOTRA와 한국무역협회는 1996년 북중간의 변경 무역액을 1억 2,00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변경 무역의 개념을 좁은 의미 즉, 양국 주민들 사이의 그야말로 소규모 보따리 장사로 파악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KOTRA, 「1996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한국무역협회, 「1996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 동향」 참조).

이 북한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권하-원정, 도문-남양, 집안-만포, 단동-신의주 등 4 곳이다. 현재 변경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단동이다. 단동에는 지방정부 및 개인 무역 회사가 800여 개 정도 있으며, 단동은 북중 변경 무역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북중 변경 무역은 1994년까지는 연변 등 길림성이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5년부터 연변 지역에서의 변경 무역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요녕성은 1995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 단동 지역에서의 변경 무역은 금년 5월 말 현재 작년 동기간에 비해 20%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폐철, 수산물 등 물자를 총동원하여 무역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북한에서 수산물이 많이 반출되고 있다.

둘째, 연변 쪽의 거래가 대부분 단동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문-남양 등의 지역은 북한의 중공업지대와 인접하고 있는데, 무산광산의 채굴 중단 등 최근 북한의 중공업 생산이 격감되면서 이 지역의 무역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연변 지역의

자금 부족도 이 지역의 변경 무역을 감소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북한이 처음에는 같은 민족이라 하여 연변 지역을 택했으나, 오히려 조선족에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북한 무역 기구에서는 “연변하고 하지 말라, 조선족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족에 대한 북한의 반감이 상당한데, 여기에는 “남한이 잘 산다고 하여 조선족들이 남한에 붙어다니고 있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금년부터 변경 무역을 신의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현재 변경 무역과 관련된 북한 물자의 대부분은 신의주로 집중되고 있다.

변경 무역의 계절별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비슷하지만, 대체로 봄철에 무역량이 많다. 그 이유는 2월과 4월에 각각 김정일과 김일성의 생일 행사가 있으며, 특히 4월에서 6월까지의 북한에서 식량 수요가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예컨대 러시아에서 목재, 자동차, 비료 등을 들여와 이를 중국에 되파는 삼각 무역도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이들 제품은 대부분 러시아에 나가 있는 벌목공들의 노임비로 받아오는 것으로서, 북한은 이들 물자를 중국과의 변경 무역을 통해 수입하

10) 이것을 압록강 하구에서 두만강 하구 방향으로 순서대로 살펴보면, 신의주-단동, 만포-집안, 중강-림강(이상 변방국가통상구), 해산-장백, 삼장-고성리(이상 변경지방통상구), 무신-남평, 화령-삼합, 삼봉-개신둔, 남양-도문(이상 변방국가통상구), 새별-사나지(변경지방통상구), 원정-권하(변방국가통상구) 등이다.

는 식량 및 식료품과 기타 필수품, 정유 제품 등의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2년의 경우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러시아産 목재, 자동차, 트럭, 덤프 등을 8,615만 달러 어치 수입하였는데, 이는 1992년 북한의 對중국 수출액의 55.4%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콩 5만 톤, 옥수수 51.5만 톤, 냉동 돼지고기 9,000 톤, 냉동 쇠고기 1,000 톤 등을 수입하였는데, 총금액은 8,614만 달러였다. 북한과 중국의 수출입액이 거의 일치하는 바, 이는 결국 북한의 對중국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노무 수출비로 지불한 것이라 하겠다. 삼각 무역에는 또 일본측 기업이 밀가루 값을 중국측 기업에 주면, 중국측 기업이 밀가루를 북한에 보내주고, 북한이 수산물을 일본측 기업에 보내는 방식도 있다.

북중 변경 지역에서는 밀무역도 성행하고 있다. 북한의 자동차, 금, 구리, 수산물, 골동품, 풍산개, 인삼, 약재 등과 중국의 식량, 담배, 술 등이 거래된다. 중국으로 밀수되는 자동차는 일본제와 독일제가 많고 그 가운데 도요타가 가장 많다. 중고차와 새차가 섞여 있으며, 벤츠도 많이 있다. 거래 방식은 일본이 직접 중국에 팔고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중국은 북한에 통과료를 지불한다. 통과비는 1 대에 500 달러 정도이다.

또 하나의 거래 방식은 일본이 북한에 자동차를 팔고, 이를 중국이 다시 밀수입하는 경우이다. 새차인 경우, 북한은 1 대에 1만 8,000 달러에서 2만 달러에 사들여와 중국에 2만 5,000 달러에서 2만 7,000 달러에 팔고, 중국은 이를 다시 3만 5,000 달러에서 4만 달러를 받고 되파는 식이다. 오른쪽 핸들을 왼쪽으로 고치는 작업은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1994년 7월에 밀수차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하루에 500~600 대가 들어올 때도 있었다. 요즘은 규모가 많이 줄어 1년에 2,000~3,000 대가 북한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입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동차 밀수 과정에서 북한으로 위조 달러가 많이 들어갔다. 중국측에서 한밤중에 가방에 돈을 넣어 북한측에 건네주면, 북한측은 몽치로 확인하고 그냥 가지고 갔는데, 이때 위조 달러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위조 달러는 주로 광주 등 중국의 남방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위조 달러는 1992년, 1993년에 가장 많이 북한으로 들어갔다. 1992년에 북한이 중국에 강판을 팔고 그 대금을 받아갈 때 그 안에도 위조 지폐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들어간 위조 지폐가 북한에서 제조된 위조 지폐와 뒤섞여 다시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어떤 회사는 골동품을 팔아 먹고 그 돈을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데, 단동에는 300만 달러나 하는 골동품도 나와 있다고 한

다. 수산물의 밀거래는 압록강 하구에 있는 한 작은 섬에서 주로 행해지며, 구리도 밀거래된다. 평양에서 신의주로 가는 열차는 도중에 정주역에서 정차하여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다음 보따리 등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검색의 주된 목적은 통행증에 있는 게 아니라 구리를 찾아내는 데 있다. 구리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밀무역과 달리 해관에 신고되는 공식 무역의 경우 관세, 수수료, 소득세 등을 내야 한다. 물론, 물자가 들어가고 나올 때 북한측 세관에 내는 세금은 전혀 없다. 북한은 소위 '세금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물자가 들어가고 나올 때 중국측 해관에서 수수료와 검사비, 소득세 등을 부과한다. 특히, 북한 물자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는 신고액 기준으로 중국측 해관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물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수산물 70%, 약재 10%, 폐철 3% 등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단동으로 들어오는 물자의 경우 50%의 관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무역 업자들은 관세와 수수료, 소득세 등을 그나마 적게 내기 위해 품목에 따라 10~20% 정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고 있다. 중국측 해관의 공식 통계는 실제 금액보다 낮게 잡혀 있는 것이다.

대금 결제 방식과 그 특성

현재 북중 무역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수출 상품 부족과 특히 북한의 대금 지불 수단 즉 외화 부족이다. 과거에는 주로 국제 시장 가격보다 낮은 우호 가격과 구상 무역 방식에 의해 북중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중 무역에서 북한의 외화 부족이 지금까지처럼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 중국이 북한에 대해 국제 시장 가격에 따른 경화 결제 방식을 요구한 이후부터 일반 무역 방식의 비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북한의 대금 지불 문제가 북중 무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물론, 경화 결제 방식의 적용은 북한의 요청에 의해 1993년 이후로 미루어졌으며, 게다가 지난해부터 국가 무역에서 다시 우호 가격이 부분적으로 부활되었다. 중국이 지난해부터 북한과의 국가 무역에서 우호가격제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 사정 악화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¹¹⁾ 그러나 변경 무역에서는 우호 가격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대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식량은 물론이고, 정유 제품과 국가 계약이 아닌 40만 톤의 원유 추가 공급분 등은 모두 현금이나 대체

11) 「日本經濟新聞」(1996. 7.13).

물자를 주고 사야 하는 것들이다.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먼저 원유 등 국가 무역의 경우 중국의 수출 초과분은 중국 지도부가 평양을 방문하여 대개 무상 원조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 무역에서는 모두 채무로 남아 있게 된다. 최근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결제 방식은 현금 결제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 정도는 대체 물자(물물 교환)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오는 대체 물자로는 목재, 폐철, 약재, 수산물, 철광석 등이 있다. 단동 지역으로는 폐철과 수산물 많이 나오고 있으며, 연변 지역으로는 목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대체 물자의 가격 결정에서는 북한이 많이 양보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변경 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측이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단동 지역에는 북한과의 무역으로 부자들이 많다고 한다. 가령, 금년 6월 현재 중국에서 쌀 1 톤은 대략 380~400 달러, 밀가루 1 톤은 260~270 달러(上品 300 달러, 下品 240 달러), 옥수수 1 톤은 148~150 달러 정도한다. 금년 6월 1일 현재 공식 환율로 100 달러는 중국 인민폐 808 원이다.

그런데 연변 지역에서 북한 목재 7 입방미터는 쌀 1 톤 가격에 교환되며, 이렇게 교환된 목재의 시세는 연변 지역에서 1 입방미터에 700 원(7 입방미터는 약 600 달러)하

며, 이것은 중국 내륙 지역에서 1 입방미터당 1,500 원에 팔리고 있다. 폐철의 경우, 북한 내에서 폐철 6~7 kg에 쌀 1 kg 값으로 교환된 폐철은 단동에서 1 톤에 95~100 달러에 교환되며, 이 폐철은 중국 내에서 다시 톤당 중국 인민폐 950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물자에 따라 최고 2~3 배 이윤을 보는 장사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과의 무역에는 대금 회수와 관련된 위험도 뒤따르고 있다. 중국측에서도 일부 있긴 하지만, 북한이 물자를 수입한 뒤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금 지불 능력 문제는 변경 무역의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북한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경화 결제를 요구했던 1992년, 1993년부터이며 1992년이 가장 심했다. 북한과의 변경 무역에서 중국측 기업이 아직 못 받고 있는 채무액은 모두 2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1992년 김정일 생일 행사 선물로 '백두산 2·16'이라고 쓴 벽시계 등 3,000만 달러의 물품을 북한에 보낸 단동 소재 모회사는 몇백 톤씩 식량을 보내주면 대금의 일부를 결제받는 식으로 하여 채무 총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93년 4월 흑룡강성 석유화학공사는 강철과의 교환을 조건으로 북한에 디젤유 6만 톤을 보냈으나, 1996년 9월 현재 아직 430만 달러가 잔액으로 남아 있다. 금액이 많

든 적든, 북한과 무역하고 있는 중국측 기업의 80~85%가 다 물려 있는 상태이다.

방법이야 어떠한 북한에서는 외국에서 30만 달러 이상만 끌어오면 김일성 훈장이나 영웅 취급을 받는다. 또 승진되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사업 당사자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결제 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기도 한다. 심지어 대금을 결제하라고 김정일이나 정무원이 사인을 했어도 그 아래 기관에서 돈이 없으며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금 회수를 위해 현재 평양의 고려호텔 등에는 중국 사람들이 상당수 체류하고 있다. 가족까지 동반하고 3 년씩 장기 체류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김정일과 정무원 총리 앞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김일성광장에서 연좌 시위를 하거나 녹음기를 틀어 놓기도 하고, 김일성 동상 앞에 누워 있기도 하고, 도시락 싸들고 상대방 회사에 가서 농성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면 조금씩 결제해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채가 물린 북한 회사와는 무역을 하지 않으며, 물자를 먼저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결제 여부를 정확히 타산한 뒤 물자를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3년에 중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철저한 상품 인수

와 철저한 대금 회수를 촉구하는 對북한 교역 지침에 따르도록 한 바 있다.

개인 회사의 경우 물자를 먼저 보내줄 때도 있는데, 후불일 경우 가격은 선불에 비해 보통 20% 정도 추가된다. 북한에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회사는 대부분 정부 산하 회사이며, 개인 회사는 파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돈을 조금씩 받아내고 있다. 그동안의 무역을 통해 본전을 찾고 이윤의 일부가 물려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지 북한에 채무가 있으면서도 중국측 기업들은 북한과 무역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이익을 주었으니 예컨대, 밀가루 좀 가져오라고 북한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북한의 대금 미결제는 1994년, 1995년을 거치면서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 협력 사업 현황과 특성

북중 경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보다 특징적인 현상은 중국의 대북 투자 협력 사업이 최근 들어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합영법을 채택한 1984~93년까지 북한의 외자 유치 실적은 총 111 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은 3 건에 불과했다.¹²⁾ 1995년 말까지 중국의 대북 투자 기업은 21 개로서 약 4,000만 달러였다.¹³⁾

12) 오용석(1996), "중국의 대북한 정책 기조와 경제 협력", 『한반도 주변 4국의 대북한 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34~35.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평양, 남포, 신의주 등 나진·선봉 이외 지역에 1996년 5월 말까지 북한이 유치한 해외 자본은 총 130여 건에 1억 3,000만 달러로서, 이 가운데 40건이 중국이라고 한다. 나진·선봉 지역의 경우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996년 6월까지 북한의 외자 유치 현황은 49 건, 3억 5,000만 달러의 투자가 계약되어, 그 가운데 22 건, 3,400만 달러가 실행되었다고 한다. 3,400만 달러의 실제 투자 실행 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프라 관련 투자가 1,350만 달러로 전체의 40.0%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상업, 수송, 서비스가 1,121만 달러(33.0%), 금융업 760만 달러(22.3%), 관광업 100만 달러(2.9%), 제조업 53만 달러(1.6%) 등의 순이다.¹⁴⁾

그런데 1996년 9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및 유엔개발계획(UNDP)과 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한 나진·선봉투자포럼(9.13~15) 이후 UNIDO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포럼 기간 중에 이루어진 북한의 외자 유치 실적은 계약서 체결 4 건에 2억 6,500만 달러이며, 합의서 체결 12 건에 5억 6,275만 달러라고 한다. 다시 말해, 1996년

하반기부터 북한의 외자 유치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표 5>에서도 보듯 그 대부분은 중국 및 홍콩계 기업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은 물론이고 홍콩을 비롯한 해외 화교 기업들에게도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KOTRA에 따르면, 1997년 6월 현재 나진·선봉 지역에서 가동 중인 외자 기업은 총 56 개 기업인데,¹⁵⁾ 이 가운데 70% 이상이 중국과 홍콩계 기업이다. 북한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자가 약속된 외국 자본 6억 5,000만 달러 가운데 1억 4,000만 달러가 집행되었다고 하며, 투자 자금은 주로 중국 및 홍콩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금액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¹⁶⁾

이렇듯 중국과 홍콩계 기업이 나진·선봉 지역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것도 최근 1년 사이에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 역시 중국의 대북 전략 외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전체로 볼 때 건수로는 아직 일본의 조총련계 기업의 투자가 많을지 모르나,¹⁷⁾ 금액으로는 중국 및 홍콩계 기업이 가장 많으며, 건

13) 오덕렬, 위의 글, p. 147.

14) 임태덕(1996. 9.13), 「나진·선봉지대 개발 현황과 개발 계획」.

15) KOTRA(1997. 8), 「북한 뉴스레터」.

16) 「중앙일보」(1997. 8.26).

17) 조총련의 자료에 의하면, 1996년 11월 현재 조총련계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한 것은 76 개 기업, 1억 4,816만 달러라고 한다(양범직(1997. 8), 「북한의 해외 자본 유치 현황과 투자 환경의 문제점」,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p. 86).

〈표 5〉 나진·선봉 투자 포럼 기간중 북한의 외자 유치 실적

(단위: 만 달러)

	투자 기업·기업가	투자 금액	대상 프로젝트
계약 체결	· 김만유(재일동포)	5,000	· 병원, 호텔 · 5성급호텔(비파해안지구, 카지노 등 포함) · 은행 · 오토바이 공장(스즈키의 기술 제공)
	· 홍콩 엠페러그룹 · 홍콩 엠페러그룹 · 중국 산둥성경기집단공사	18,000 3,000 500	
	합계	26,500	
합의서 체결	· 홍콩 Anto무역	400	· 수산물 가공 · 관광 서비스 시설 · 수산물 가공, 조립 주택, 통신 설비 공장, 무역 회사 · 제지 공장 · 나진비즈니스센터(상업빌딩) · 관광 호텔 · 주유소 · 벽돌 공장 · 목재 가공 공장, 웅상목재항 · 완구 공장(나진) · 나진제2비닐공장 보수·확장 · 선봉석유정제공장 개선·확장
	· 중국 연변 현통그룹	300	
	· 태국 록슬리그룹	1,000	
	· 미국 이스턴C&T네트워크	500	
	· 재미경제인연합회	1,000	
	· 중국 장춘 소재 기업	300	
	· 중국 장춘 소재 기업	25.7	
	· 중국 장춘 소재 기업	50	
	· 홍콩 기업	12,000	
	· 홍콩 기업	600	
	· 연변(연길) 기업	100	
· 홍콩 기업	40,000		
	합계	56,275.7	

자료: UNIDO 두만강개발사무국.

수로도 앞으로는 중국 및 홍콩계 기업이 일본의 조총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및 홍콩계 기업의 주요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나진·선봉의 경우 식당, 상점, 호텔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도로, 항만, 해운, 항공, 금융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중국 연변현통집단의 나진·청진항 컨테이너 설비 및 항만 확장 공사와 나진~일본 니이가타 정기 항로 운항, 중국의 연변항운공사의 나진~부산간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 홍콩 신동북아사의 나진헬

리포트 부속 건물 공사 및 연길~나진·나진~평양간 헬기 운항, 홍콩 타이슨사의 나진~원정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홍콩의 폴아이티씨사의 선봉비행장 건설, 홍콩 허치슨 그룹의 나진항 건설, 홍콩 엠페러그룹의 호텔 및 카지노 건설 등이 그것이다.

또 중계 수송과 같은 물류 부문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 투자는 아직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나진·선봉 지역 개발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이 지역을 국제 중계 화물 수송 및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북한은 현재 여타 지역의 인프라 정

〈표 6〉 중국 및 홍콩계 기업의 나진·선봉 지역 투자 진출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비고
중국	북경순선무역회사	· 봉사업(상점, 식당), 중계업 / 팔경합영회사(20만)	가동
	훈춘신성무역회사	· 상점 / 라진훈춘상업합영회사(50만)	가동
	연변국제무역청사유한책임회사	· 제약업 · 약국 / 라진보건합영회사(10만)	이행중
	북방극동북지구전자기계청사	· 상점, 되거리 무역 / 라북합영회사(50만)	가동
	훈춘장애인취업관리소	· 상점 / 봉춘상업회사(21만)	가동
	임업국제합작공사(훈춘공사)	· 목재, 중계 수송 / 라훈목제품유한회사(260만)	이행중
	홍대무역공사	· 고려약 생산 · 판매 / 고려약합영회사(32만)	가동
	연변선홍경제무역유한회사	· 온시 채소 생산 · 판매 · 중계 무역 / 라연남새합영회사(52만)	가동
	극동북지구전자기계청사	· 설비 · 자재 · 원료의 되거리 무역 / 평화무역회사(30만)	가동
	연변고려축목발전유한회사	· 한중, 음악실, 청량 음료점, 호텔 / 국제구락부(300만)	이행중
	훈춘릉성경제무역회사	· 식당 봉사업, 중계 무역 / 룡진회사(50만)	가동
	연변웅흥집단공사	· 식당, 상점, 택시, 연유 판매 / 조선라진웅흥집단공사(351만)	이행중
	길림성연길아세아대외무역공사	· 봉사업/연길상점(라진연길사업회사, 100만)	이행중
	중합수출입공사(길림공사)	· 상점, 관광 봉사, 중계 무역 / 라선무역관광회사(230.9만)	이행중
	산둥성경기집단공사	· 오토바이 공장(스즈키의 기술 제공; 500만)	계약
	연변현통그룹	· 관광 서비스 시설(300만)	합의서
연변 기업(기업명 미확인)	· 나진제2비닐공장 보수 · 확장(100만)	합의서	
장춘 소재 기업(기업명 미확인)	· 관광 호텔(300만)	합의서	
장춘 소재 기업(기업명 미확인)	· 주유소(25.7만)	합의서	
장춘 소재 기업(기업명 미확인)	· 벽돌 공장(50만)	합의서	
연변항운공사	· 화물 중계(나진~부산 정기컨테이너선 운항, 200만)	가동	
홍콩	페레그린	· 페레그린 · 대성은행 설립(나진 · 선봉사무소 운영, 1,500만)	설립
	아시아개발그룹	· 나진 · 선봉 지역에 카지노, 아파트, 면세점 건설	계약
	폴 아이티씨	· 선봉비행장 건설을 위한 합영 회사 설립	합의
	신동북아회사	· 헬리포트 건설(나진~평양, 나진~연길)	이행중
		· 주류, 청량 음료 생산 공장(1단계 투자 200만)	운영
		· 나진호텔 운영권(재미 교포 김진경氏 투자, 250만)	합의
	영스트레이딩사	· 나진 · 선봉호텔 합작 건설	합의
	엠펜러그룹	· 오성급호텔, 카지노(1단계 착수, 1억 8,000만)	착수
	타이슨	· 은행(3,000만)	계약
		· 여관, 상점, 식당 / 라선국제유한회사(라진1호텔, 740만)	운영
	· 택시, 연유 판매 봉사, 화물 운송 / 흥성운수유한회사(200만)	이행중	
	· 도로 건설, 관리, 자동차 수송 / 명광타이슨도로합작회사(7,220만)	계약	
라선투자자문유한회사	· 상품 도매, 관광 봉사 / 라진상업센터개발 · 관리회사(700만)	이행중	
z에어	· 20~25인승 경비행기 운항(평양~나진)	계약	
一州그룹	· 객실 400 실 규모 호텔 건설(쌍둥이빌딩, 3,000만)	계약	
허치슨그룹	· 나진항 건설	의향서	
Anto무역	· 수산물 가공	합의서	
	· 원구 공장(나진, 600만)	합의서	
홍콩 기업(기업명 미확인)	· 목재 가공 공장, 웅상목재항(1억 2,000만)	합의서	
홍콩 기업(기업명 미확인)	· 선봉석유정제공장 개선 · 확장(4억)	합의서	
싱가포르	전목유한회사	· 수산물 생산, 가공, 수출, 상점, 중계 무역 / 수채봉수출수산합영회사(120만)	가동

주: () 안은 달러 기준 투자 규모, 가동은 투자 이행률 50% 이상인 경우임.

비 및 제조업 정비는 일단 뒤로 한채, 나진·선봉 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진·선봉 지역의 인프라 확충 및 물류체계 정비에 중국 및 홍콩계 기업의 투자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평양, 남포 등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경공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맺음말: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96년 5월 이후 무역 및 투자 협력 등의 분야에서 북중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크게 증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북중 경제 관계는 중국의 대북 정책의 방향에 많이 영향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전략 외교는 앞으로도 당분간 큰 변화없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중앙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변경무역을 비롯한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은 대체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10만 톤의 곡물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도 지방정부 지도자의 요청을 중앙정부가 수용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화폐를 중국 변경 지역 내에

서 사용 가능하게 한 것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나 북한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변경 지역에서의 밀무역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으며, 또 중국의 대북 '전략 외교'는 변경 무역이 꾸준히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보여준다. 금년에는 단동시에 인접한 하구, 동강, 태평만 등 4 곳에 통상구를 새로 설치하는 등 변경 무역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북한은 지난 6월에 중국의 권하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원정리에 자유 시장을 개설하였는데, 이에 발맞춰 중국도 권하에 자유 시장을 개설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 시장 개설은 북중 변경 무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원정리 자유 시장이 성공을 거둘 경우 북중 접경 지역의 더 많은 곳에 그와 비슷한 자유 시장이 확대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유 시장에서는 물물 교환을 기본으로 하되 화폐 유통도 가능하다. 통용 화폐는 북한 인민폐, 중국 인민폐, 달러 등인데, 이들 사이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공식 환율로 중국 인민폐 95 전은 북한 인민폐 1 원과 교환되지만, 비공식 환율로는 중국 인민폐 1 원은 북한 인민폐 30 원 내외에 교환된다. 금년 5월 신의주 암시장에서 100 달러는 북한 인민폐 2만 3,000 원에 교환되고 있다. 6월 1일 현재 공식 환율로 평양의 경우 100 달러는 푸른색 외화 바꾼돈 212 원(5월의 경우

216 원)에 교환되며, 암시장에서 이 외화 바꾼돈 1 원은 북한 인민폐 95 원에 교환된다 (참고로 금년 6월 1일 현재 평양 농민 시장의 가격은 <표 7>과 같다).

또 중국은 최근 들어 자국 기업 및 홍콩을 비롯한 해외 화교 기업들에게 나진·선봉 지역 등 북한에 대한 투자 진출을 유도하고 있어, 중국의 대북 투자 협력 사업도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대외경제무역합작부 소속의 10대 회사 가운데 五金鑛山進出口公司가 먼저 평양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은 마그네슘, 티타늄, 금, 은, 동 등 북한의 자원 개발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철, 금, 티타늄 등 희귀 금속은 중국산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북중 경제 협력 관계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확대될 경우 더욱 강화될 것이

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중국 사람들은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조만간 개혁·개방을 보다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도 북한은 내적으로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말 북한의 교육위원회 대표단이 중국의 14개 연해 개방 도시의 경제 정책을 돌아본 뒤, 중국교육위원회에 요청해서 자동차 1대 분량의 시장 경제 관련 경영학 교재를 받아갔다.

최근 북한의 학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이 해외 유학을 보내는 나라는 대부분 중국인데, 이들의 주요 전공 분야는 경제학이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시장 경제를 배우고 있는 셈이다. 1996년의 경우 150명의 북한 학생이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가운데 80여 명이 길림대 학이며, 나머지는 상해, 북경 등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분조관리제의 개선 등 농업 분야에서 일정한 개혁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최근 북중 변경 지역과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방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즉, 북한은 최근 원정리의 자유 시장 개설을 비롯하여 자영업 및 생산물의 자유 판매 허용, 외환 자유화 등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도입을 의미하는 나진·선봉지대의 개혁·개방

<표 7> 1997년 6월 1일 현재 평양 농민 시장의 가격

품목	가격
쌀 1 kg	90 원
토마토 1 kg	130~160 원
계란 1 개	17 원
작은 고추 1 봉지	100 원
두부 1 모	8 원
마늘 1 묶음(6 개)	10 원
감자 10 개(계란보다 조금 큰 것)	100 원
부추 1 단(지름 5~6 cm)	10 원
홍당무 5~6 개	200 원
발간무우 3 개	10~20 원
양파 6 개	200 원

주: 북한 근로자의 월임금 = 70~80 원임.

확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이 유엔 공업개발기구에 보낸 투자 유치 희망 분야에 의하면 평양, 남포, 사리원 등으로 외자 유치 개방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또 원산과 남포 지역도 보세 가공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신의주 앞의 신도를 조만간 개방할 예정이다. 평양·남포의 경우 북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에 이 지역을 집중 개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중국의 某수출입진출구공사 총경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이 개방하면 중국보다 빨리 발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첫째, 교육 수준 등 북한의 문화 수준이 중국보다 높다. 둘째, 인구가 중국보다 적고 자원이 많다. 셋째, 단일 민족으로서 단결성과 조직 규율성이 중국보다 강하다. 그는 중국이 10년 걸릴 것을 북한은 5년이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거의 붕괴 상태에 있지만 개방을 하면 1~2년 내에 좋아지리라는 것이 대북 경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측 사업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측 사업가들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계속 확대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역 및 투자 협력 분야에서 북중간의 경제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중국은 북한 최대의 경제 협력국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북한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가 증대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가 증대될수록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함께 증대될 것이며, 결국에는 북한이 중국의 경제권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한민족경제공동체 형성과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의 현상 타파적 대북 정책과는 달리, 비록 중국이 북한체제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 중국의 대북 경제 협력 증진 정책은 김정일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 정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경제공동체 형성과 한국 주도의 민족 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중국의 비협조적 상황을 최소화하고 중국의 협조를 보다 증대시킬 수 있는 對중국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대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의 대북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보다 유연하고 보다 전략적인 대북 통일 정책이 요구된다. **統**